

인류와 패러디

건진국수에는 건진국수, 라는 삼베 올 같은 안동 말이 있고 안동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여름날 안마루에서 밀가루반죽을 치대며 고시랑거리는 소리가 있고 반죽을 누르는 홍두깨와 뺏센 손목이 있고 옆에서 콩가루를 싸락눈처럼 술술 뿌리는 시누이의 손가락이 있고 칼국수를 써는 도마질 소리가 있고 멸치국물을 우리는 칠십년대 녹슨 석유곤로가 있고 애호박을 자작하게 볶는 양은냄비가 있고 며느리가 우물가에서 펌프질하는 소리가 있고 뜨거운 국물을 식히는 동안 삽썩을 힐끔거리는 살뜰한 기다림이 있고 도통 소식없는 서방이 있고 때가 되어 사발에 담기는 서늘한 눈발 같은 국수가 있고 찰방거리는 국물이 있고 건진국수 옆에 첩처럼 따라붙는 조밥이 있고 열무며 풋고추며 당파를 담은 채반이 있고 건진국수에는 누대의 숨막히는 여름을 건진국수가 안동 사람들을 건졌다는 설이 있다.

- 안도현, <건진국수>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오월은 왔다 비수를 품은 밤으로
야수의 무자비한 발톱과 함께
바퀴와 개머리판에 메이드 인 유 에스 에이를
새긴
전차와 함께 기관총과 함께 왔다
오월은 왔다 헐떡거리면서
피에 주린 미친 개의 이빨과 함께
두부처럼 처녀의 유방을 자르며
대검의 병사와 함께 오월은 왔다
벌집처럼 도시의 가슴을 뚫고
살해된 누이의 웃음을 찾아 우는
아이의 검은 눈동자를 뚫고
총알처럼 왔다 자유의 거리에
팔이며 다리가 피묻은 살점으로 뒹구는

능지처참의 학살로 오월은 오월은 왔다
그렇게!

바람에 울고 웃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일어나거라 쓰러지지 않았다
오월의 무기 무등산의 봉기는
총칼의 숲에 뛰어든 맨주먹 벌거숭이의
육탄이었다
불에 달군 대장간의 시뻘건 망치였고
낮이었고
한 입의 아우성과 함께 치켜든 만인의
주먹이었다
피와 눈물 분노와 치떨림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이
사랑으로 응어리져 증오로 터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었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학살의 야만과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일어나는 풀잎으로 풀잎은
피의 전투와 죽음의 저항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학살과 저항 사이에는
바리케이드의 이편과 저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 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적어도 오월의 광주에는!

- 김남주,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어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화자가 청자나 제재에 대해 취하는 특정 태도를 어조라고부르는 경우, 어조는 이 인물(화자)이 내는 특정한 목소리로 기능한다. 이 때 어조는 아래의 문제를 갖는다.

- ① 어조의 근원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는다.
- ② 목소리를 화자의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작가와 작품의 내적, 외적 서술자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 ③ 이중화된 어조, 곧 반어나 역설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시적 대상을 단순한 사물이나 제재로만 간주한다.
- ⑤ ‘개성’ 곧 화자(혹은 시인) 고유의 ‘목소리’와 실제 어조가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유와 패러디의 경우, 화자의 목소리는 개성적이지 않거나 분열돼있다.**

어조는 화자의 심리상태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다. 내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보는가가 어조를 낳는다고보다,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나와 연계되는가가 어조를 낳는다.

어조의 유형

유형	풍자	예찬	연민	반성	해학
주체와 대상의 거리	멀다(공격적) 윤리적, 도덕적 우월성이 전제	가깝다	가깝다	멀다(반성적) 대상과 주체가 일치	가깝다 (멀었다가 가까워지다) 공격받는 대상이 주체와 화해. 해학은 대상에 부여된 속성이므로 내부에 풍자를 품고 있음.
주체와 대상의 관계	우월	열등	우월	평등	우월

나는 보았다 利子에 비틀거리는 청년들 성당 입구에서
기타 반주에 맞춰 흘러간 가요를 애절하게
利子하는 장님들 해남 대흥사 뒤뜰에 노랗게 핀
이름 모를 작은 꽃들 현금자동지급기 앞에 늘어서서
현금을 찾고 있는 利子들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불문학 교수가 된 시인들 설악산 대청봉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보이스카웃 대원들 나는 보았다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TV에서 울창한 숲과 탁 트인 바다에서
백화점에서 종로에서 영등포에서 나는 보았다
利子위에서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부르는 가수들
검은 옷을 걸치고 근엄하게 검은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利子を 빨며 곤히 잠든 아이들
파고다공원 뒤에서 利子を 꼬시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동성연애자들 석양으로 물든 利子에 점점이 떠 있는 작은 섬들
利子を 깨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던 주먹들
利子を 잉태한 어머니들 백사장에 누워 작열하는 利子에
몸을 태우고 있는 비키니들 나는 보았다
利子가 利子와 뒤엉켜 몸부림치는 광경을 나는
보았다 利子가 利子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利子を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利子の 무리를

- 장경린, <사자 도망간다 사자 잡아라>

호박 한 덩이 머리맡에 두고 바라다보면
방은 추워도 마음은 따듯했네
최선을 다해 땀땀해진 호박
속 가득 차 있을 씨앗
가족사진 한 장 찍어 본 적 없어
호박네 마을 벌소리 붕붕
후드득 빗소리 들려
품으로 호박을 꼬옥 안아 본 밤
호박은 방안 가득 넝쿨을 뻗고
코끼리 귀만한 잎사귀 꺼끌꺼끌
호박 한 덩이 속에 든 호박들
그새 한 마을 이루더니

봄이라고 호박이 썩네
흰곰팡이 피우며
최선을 다해 물컹물컹 썩어 들어가네
비도 내려 흙내 그리워 못 견디겠다고
썩는 데로 먼저 문을 열고 걸어나가네
자, 출세(出世)다

슬픈 빙하시대 5

허연

잉글랜드 축구 3부 리그 축구팀의 수비수가 날 울릴 때가 있다. 얼마나 더 살겠다고 MRI 찍는 통 속의 고독을 견디는 구순의 노인이 날 울릴 때가 있다. 쓰러지기 전 거품 문 투우의 마지막 진실 같은 거. 그게 날 울릴 때가 있다.

누군가와 일요일 아침 식은 밥을 물에 말아먹고 싶다고, 겨울 내내 촌스러운 화장을 하는 여자. 카운트는 끝나 가는데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곧추세우려는 실패한 복서의 눈빛 같은 거, 절대 고독 안에 뒹굴고 있는 입석들의 폐허다. 인생은

떨어지기 전, 떨어지기 전, 그 간들거림.

밤새도록 점멸하는 가로등 곁,
고도 6.5미터의 허공에서 잠시 生長을 멈추고
가우뚱히 생각에 잠긴 나무,

제 몸을 천천히 기어오르는 벌레의 없는 눈과
없는 눈의 맹목이 바라보는 어두운 하늘에 대하여,
하늘 너머의 어둠 속에서 지금
더 먼 은하를 향해 질주하는 빛들에 대하여,

빛과, 당신과, 가로등 아래 빵 굽는 마을의
불 꺼진 진열장에 대하여,
그러므로 안 보이는 중심을 향해 집요하게 흠을 파고드는
제 몸의 지하에 대하여,

텃새 한 마리가 상한선을 긋고 지나간 새벽 거리에서
너무 오래 생각하는 나무.

일곱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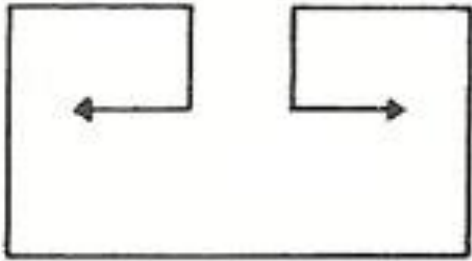
함성호

티끌 모아 태산(泰山)을 이루었더니 어머니가 보시고는 저,
지저분한 산(山) 좀 버려라, 하신다 할 수 없이 태산(泰山)을
쓰레기통 속에 버리고
피곤해서 잔다

烏瞰圖 詩第五號

이상

某後左右(모후좌우)를除(제)하는唯一(유일)의痕跡(흔적)에잇서서
翼殷不逝(익은부처) **目大不覩(목대부도)** **目不大覩(목불대관)**
胖矮小形(반왜소형)의神(신)의眼前(안전)에我前落傷(아전낙상)한故事(고사)를有(유)함.



臟腑(장부)타는것은浸水(침수)된畜舍(객사)와區別(구별)될수잇슬는가.

여기에 섰노라. 흐르는 물가 한송이 수선(水仙)되어 나는 섰노라.

구름 가면 구름을 따르고, 나비 날면 나비와 팔앙이며, 봄 가고 여름 가는 온가지 나의 양자를
물 위에 띄우며 섰으랴이면,

늪가 나를 울리기만 하여라. 내가 늪를 울리기만 하여라.

(아름다왔노라
아름다왔노라)고,

바람 자고 바람 다시 일기까지, 해 지고 별빛 다시 널리까지, 한오래기 감드는 어둠 속으로
아아라히 흐르는 흘러가는 물소리.....

(아름다왔노라
아름다왔노라)고,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거늘, 나비와 새들이 흘러가거늘,

한송이 수선이라 섰으랴이면, 한오래기 감드는 어둠 속으로, 아아라히 흐르는 흘러가는
물소리.....

- 김춘수, <나르시스의 노래 –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에>





‘인유’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인유한 텍스트의 독자성이 감지되어야 한다.
2. 인유한 텍스트와 인유된 텍스트 사이에 의미론적 긴장이 있어야 한다.
3. **두 텍스트 사이의 긴장이 강렬하여 의미론적 뒤틀림이 일어날 때**, 인유의 효과는 강렬해진다. 이것이 **패러디**다.
4. 패러디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구절과 모티브를 따오는 부분적인 패러디, 문체나 구조를 반영하는 전면적인 패러디로 나뉠 수 있다.

J의 엄마는 미혼모였다 어느 열뜨기가 그녀를 받아들여 같이 살았다 의붓아버지는 토목공이었다 병원에 가지 못해 가축우리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가출을 한 번 했는데 갈 곳이 없어 교회에 무단 침입했다 서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래*** 어느 날 몽상이 늙은 백수건달의 머리를 망치로 뺏겠다 히피가 되는 거야 사막으로 나가 코카인과 헤로인을 번갈아 하고 명상 중에 악마를 보았다 접신을 하고 초능력을 얻었다 무당이 된 그는 낙오자를 끌어 모아 교주가 되었다 엘에스디를 왕창 먹여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 흑마술을 부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주문을 외워 시체를 좀비로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패거리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달변이었다 항상 주위에 유령이 출몰하고 더러운 비둘기가 맴돌았다 매춘부를 좋아해서 자주 그녀들과 어울렸다 세력이 점점 커져 히피교주를 숭배하는 무리가 늘어갔다 그는 스타가 되었다 식민제국주의를 타도하자며 무산 계급 기층 민중을 옹호했다 체제 전복을 기도했고 이내 체포되었다 생쥐떼 같은 대중은 그를 배신하고 법원은 연쇄살인자를 사면했다 내란 음모죄로 사형이 집행되어 전기의자에 앉았다 일 분을 채우고 청진기를 대보았다 여봐라 저놈을 더욱 지저라 눈알이 튀어나오고 입에 게거품을 물었다 그는 죽고 나서 더욱 유명해졌다 며칠 뒤 좀비가 되어 공중 부양 후 미확인 비행물체를 타고 사라지며 말했다 아일비백 신드롬이 형성되고 전기가 출간되고 추앙하는 자들이 늘어갔다 요술왕자 겸 히피교주 때문에 살육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의 적자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교주를 팔아 돈을 벌었다 J를 전기구이로 만든 의자는 성물이 되었다.

*그룹 코코어의 노래 <잠수>중에서

- 이승원, <아이콘>

박목월과 김소월의 <왕십리>

내일 모레가 육십인데
나는 너무 무겁다.
나는 너무 느리다.
나는 외도가 지나쳤다.
가도
가도
바람이 입을 막는 왕십리.

비가 온다
오누나
오는 비는
올지라도 한 닷새 왔으면 좋지.

여드레 스무 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朔望)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가도 왕십리(往十里) 비가 오네.

(후략)

바람이 분다, 살아보야겠다 —고 한 당신의 말 그대로
바람이,
바람이 분다

허나
인간인 당신에게는
인간인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과 마찬가지로 밖에
할 수 없음을 용서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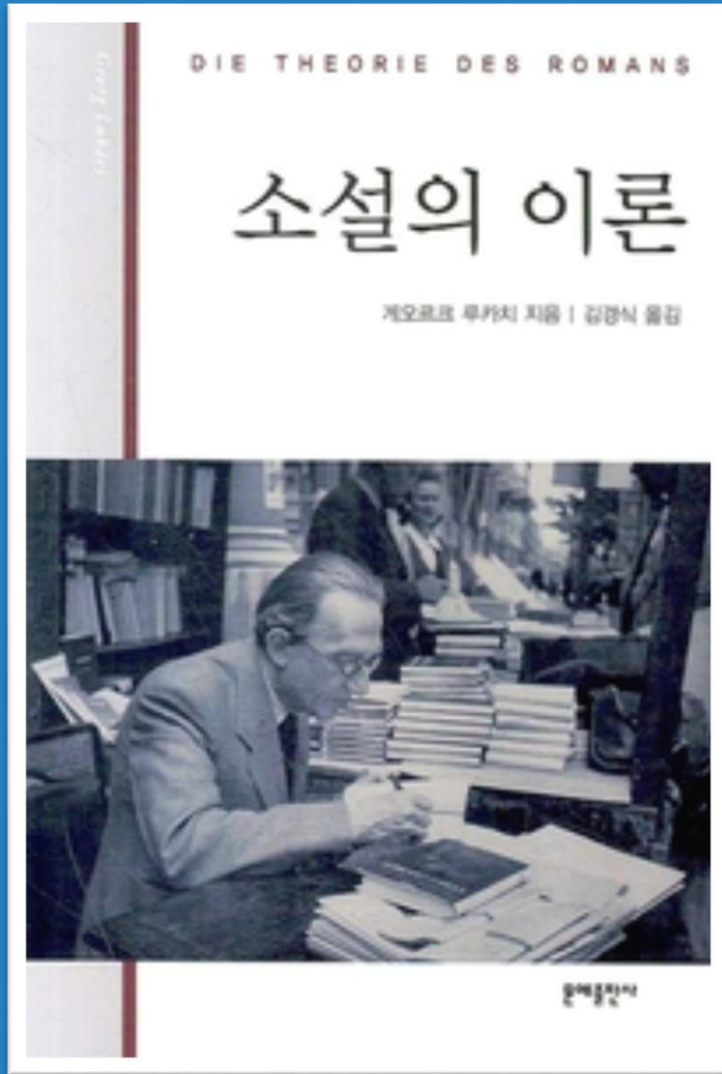
바람이 분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의 마음으로 불지 않고
미안하지만
바람의 마음으로 분다

– 오규원, <바람은 바람의 마음으로-발레리에게>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에, 라고 쓰면
땀엔 화사한 것이 적지 않던 너는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번역하던 창가였다.
창문을 열면 이제 별 한 톨 없이
고속도로의 굉음만 쏟아져 들어오는 밤,
통증 때문에 침대 끝에 나앉았는데
호랑이띠인 너는 무슨 으르렁거릴 게 많아서
이빨을 득득 갈며 잘도 잔다.
무게라면 등이 훔칠 것 같은 삶의 무게라도
네 것까지 한껏 도맡아 안고
별빛으로 길의 지도를 읽어대던 시절의
빛이 사라진 후, 쾌락이라면
마지막 한 방울의 것까지 핥고 핥던 서로가
아픔은 한 점이라도 서로 나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멎 필요는 없으리라.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상처 입은 날들의
적재(積載)와 같은 마주 보이는 어둠의 아파트,
하기야 생계 하나만으로도 서둘러 일어나
저렇게 몇몇 창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또한 늘상 너와 내가 아니던가.

생계 본능으로 새벽을 일으키는 네가
땀엔 화사했던 것들을 곤한 코골이로 지울 때
닭띠인 나는 꼬끼오, 나 대신 울어주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너의 이불을 여미고,
네 늦어버린 출근길에 지청구를 듣는다 해도
잠 못이루는 이 통증의 마음엔 별이 없다.

- 고재종, <나의 통증엔 별이 없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이런 시대에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은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식 모

김수영

그녀는 도벽이 발견되었을 때 완성된다
그녀뿐이 아니라
나뿐이 아니라 천역(賤役)에 찌들린
나뿐만이 아니라
여편네뿐 아니라 안달을 부리는
여편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새끼들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새끼들까지도

그녀가 온 지 두 달 만에 우리들은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식모는 말이 없다.
말을 많이 하면 밥이 상한다.
그런 미신 때문에 더 많은 밥을 하는
식모의 말은 짧고
강하고 없다.

밥이 없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
생각이 없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몸
그 몸으로 밥을 하고
그 몸으로
말이 없다.

생각보다 짧다.
우리가 먹는 밥 시간은
우리가 놓는 숟가락 소리는
누구보다 강하고
짧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하고
밥이 상한다.
식탁에서

밥과 밥찬과 모두가 사라질 때까지
식모는 말이 없다.
아니면
더 많은 밥이 필요하다고.

- 김언, <식모>

여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남자의 애간장이 탈 때마다 여자는 콧대를 세우고 연막을 쳤습니다. 여간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고사리 같은 손과 피꼬리 같은 목소리는 각광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깨를 쏟으며 지지고 볶는 동안, 알토란이나 떡두꺼비를 닮은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어색한 풍경에 제법 구색이 갖추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간을 녹일 때마다 남자의 간은 점점 콩알만 해졌습니다. 급기야 여자는 남자의 간을 빼먹었지만 정작 자신의 간에 기별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헌신짝 버리듯 남자에게 퇴짜를 놓았습니다. 변죽을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립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큰맘 먹고 가슴에 칼을 품었지만 간이 떨어져나가 무도 बे지 못했습니다. 복장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사랑에 대해 개뿔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더위를 먹고 열병에 걸리고 급기야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눈앞도 캄캄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올 때마다 정수리에서 나사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쪽박이라도 차고 사시나무 떨듯 울고만 싶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도 없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를 살리기 위해 억지로 아가리를 벌려 엿을 먹였습니다. 여자에게 욕을 먹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엿이든 욕이든 뒷맛이 소태처럼 썼습니다. 여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웃 마을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여자는 살아남을 것 같았습니다. 간이 이미 부을 대로 부어서 여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었습니다. 밥맛이 떨어질 즈음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 했습니다. 신들린 아이들이 동네방네 찬물을 끼얹고 놀았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뱃가죽이 등에 붙어 버리자, 남자는 두 손 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짐을 싸면 쌀수록 짐을 벗는 것 같았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는 어른들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가을이 겨울을 앞질렀습니다. 살판난 아이들이 쾌재를 부르며 겨울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문헌

게오르그 루카치,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7.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남지현,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시교육의 구체화>, 《문학교육학》 5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7.

정끝별, <한국 현대시의 패러디 구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